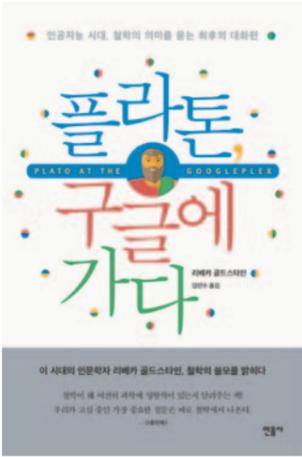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가'

현대인과 만나는 대화편 '플라톤, 구글에 가다' 출간



연구실에 자기공명 영상 장치가 놓여 있다. 인지과학과 조교가 파란 수술복을 걸친 피험자를 데려온다. 뇌 처리 과정을 보여 주는 자기공명 영상을 촬영할 백인 남성이다.

고등교육 수료자이자 그리스 출생이

며 나이는 2400세. 바로 철학자 플라톤이다. 인지과학자는 직업이 철학자라는 그의 말에 "점성술사, 연금술사와 같은 연구실을 쓰느냐"고 묻는다. 인간의 자유 의지나 도덕성 같은 능력을 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당신 같은 철학자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라는 질문이 이어진다.

또 다른 장면. 플라톤이 출간 기념 강연회를 하러 구글 본사에 나섰다. 강연장으로 가다가 마주친 티셔츠에 참바지 차림의 구글 직원이 '세계의 모든 지식을 모은다'는 구글의 목표를 홍보한다.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는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키워드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가'라는 윤리적 문제에도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그러나 좋은 삶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철학자뿐이라고 강조한다. 고대 로마인들이 '몸에 둘러 입었던 매우 긴 모직 옷인 토가'를 입은 플라톤을 구경하던 사람들

은 그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처음에는 황당해하고 반발한다. 하지만 차츰차츰 그의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철학적 픽션의 대가'로 통하는 리베카 골드스타인(뉴욕 대학교 철학과·영문학과 초빙 교수, 런던 뉴 칼리지 오브 휴머니티스 철학과 초빙 교수)이 펴낸 '플라톤, 구글에 가다'는 오늘날 환생한 플라톤이 현대인과 만나는 대화편과 그에 대한 해설로 구성됐다.

무리수로 보이는 설정을 생생하게 살리는 필력이 뛰어나다. 위엄과 귀여움을 겸비한 플라톤의 캐릭터와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무기다. 구글플러스를 방문하고, 육아 토론회에 참석하고, 연애 고민을 상담해 주고, 뇌과학자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플라톤은 정치, 교육, 종교, 과학의 배후에 있는 철학의 역할을 밝힌다.

'플라톤, 구글에 가다'는 철학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책이다. '과학은 발전하지만 철학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을 주

로 겨냥한다.

골드스타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수학자 괴팅의 평전 '불완전성'을 썼다. 여러 소설 작품으로 문학상을 수상했고, 2011년 올해의 인물주자로 뽑혔다. 작년에는 백악관에서 국가 인문학 훈장을 수여받았다. 현재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이다. 세계적인 지성인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가 그녀의 남편이기도 하다.

철학, 문학, 과학에 동시에 몸담으며 일반 독자를 위한 저술에 힘쓰는 동시에 분과 학문으로서의 지위에 만족하는 아카데미 철학자들의 무사안일에 거리를 둘 수 있는 이유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시작해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 갈릴레오와 케플러에서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위대한 과학자들, 스피노자에서 푸코까지 철학의 거장들 그리고 마사 너스바움, 스티븐 그린블랫, 피터 싱어, 알렉산더 네하마스 등 동시대 일급 학자들까지 방대한 참고 문헌을 통찰로 종합하면서 플라톤이라는 거인의 사상을 추적해 나간다. 김민수 옮김, 712쪽, 2만5000원, 민음사 /이성주기자

고창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본격화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관소리전수관을 주민의 여가생활과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관소리전수관을 고창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공모사업 신청계획 수립 후, 공모사업 현장실사 및 컨설팅을 거쳐 고창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변경계획안을 제출해 올 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국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입해 기존 관소리 전수관을 리모델링하게 되며 최근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준비 중이다.

고창생활문화센터는 군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구성되어 1층은 운영사무실, 다목적실, 북카페, 약기 연습실과 2층은 관소리전수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우정 군수는 "문화예술 활동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개인이나 동호회 구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문화창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황현중 시집 '너를 흔드는...' 출간

황현중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너를 흔드는 파문이 좋은 거야'가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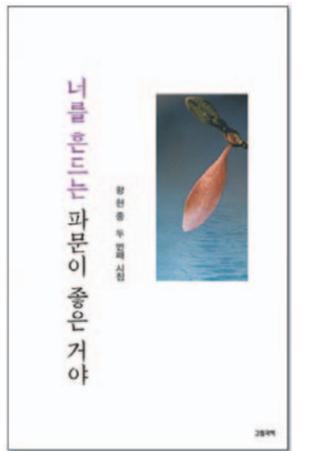
그는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주변의 환경에서 느낀 일상의 감상들을 품사해 79편의 시로 담아냈다.

시인은 "시는 삶의 반영이라는 말에 걸맞게, 시를 통해 내 삶이 보다 진지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한다"며 "시가 버거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앞에 너무 무겁지 않길 바라고 지나치게 의미에 얽매이거나 얽매처럼 풀리지 않는 난해한 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근호 시인은 서평에서 "진정한 사랑은 아무 조건도 탐욕도 없는 지고지순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사랑이 실현되는 정점은 '마음과 마음'이 닿는 지점이라 하겠다. 그래서 시인은 서로의 마음이 닿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의 실체로 파악한다. 시인에게 사랑은 파문이며, 파문의 결과 또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황현중은 전북 부안 출생으로 월간(시사문단)에서 시로 등단했으며, 현재 시사문단 낭송회 이사와 북한강문화제 추진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조용히 웃는다'(2015)가 있다. /정해은기자



왕의 글씨에 담긴 뜻은

18일 전주역사박물관 특강

전주역사박물관은 지역민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역사 문화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왕의 글씨, 어필'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에서 열리며 강의는 어필연구로 석규관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정남(국립무형유산원)선생님이 맡는다.

어필은 임금님이 쓴 글씨로 왕조시대에는 모든 면에서 왕의 권위가 절대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어필 또한 왕과 같이 존엄과 존송의 대상이었으며 왕의 이념과 서체는 그 시대의 역사경향과 예술성향을 대표하기도 하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왕조 500여 년 간 수많은 왕들이 남긴 글씨와 그 글씨에 담긴 조선의 정치·사회·문화 등을 살펴본다.

국정을 운영하는 임금의 입장에서 내려지는 어필은 통치력과 공신력의 상징이었다.

중요한 국정사안은 어필로 직접 교지를 내리거나 치계, 상소문 등에 직접 답을 달기도 하였고, 신하가 올린 글이나 임금 본인이 쓴 글을 직접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종은 폐비윤씨와 관련하여 후대가 지켜야 할 절목을 어필로 써서 남기기도

록 하였으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과거 어필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고종19년(1882)의 국과의 조약 체결에는 어필 비준이 필수적 요소였다.

이외에도 지방으로 떠나는 관료에게 당부하는 글이나 비밀지령문을 써주고, 신료나 왕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궁궐이나 서원의 편액을 쓰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 증명서를 직접 써주기도 하는 등 다방면에서 임금의 뜻을 전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왕이 붓으로 쓴 어필은 서예사적 의미도 있어 조선 초 조맹부체부터 한석봉체와 안진경체 그리고 영조와 정조만의 글씨체까지 조선시대 서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특강 참가 대상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100여명이다.

10일 까지 홈페이지(www.jonjumuseum.or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 228-6485~6.

/정해은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4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된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공연이 지역 소외계층 190여명을 포함한 시민 1천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정읍공연 성황

시민 800여 명 관람

지난 4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된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정읍공연이 지역 소외계층 190여명을 포함한 시민 1천여명이 찾은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났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은 "작품 내용에 대한 해설이 곁들여져 있어 발레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었다"며 "특히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출연자와 교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8일>

<p>▷쥐띠 46년생: 구슬수 시비수가 따른다. 6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72년생: 문서운이 들어오니 계약, 서류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84년생: 일적인 능력이 올라가니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p>	<p>▷소띠 49년생: 인덕이 따르니 일이 잘 성사될 것이다. 61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73년생: 혼자서 해내야 하는 운이니 타인의 덕을 바라지 마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 매사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p>	<p>▷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택으로 향하니 집안에 화기가 돌면서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86년생: 먼저 배틀고 덕을 쌓아라.</p>	<p>▷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나 결손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으리라. 75년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기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옛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옛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65년생: 소외된 사람에 선심을 베풀면 좋은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나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 하는 운이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라고 행동하지 말라.</p>	<p>▷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p>	<p>▷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 79년생: 사회적 계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라.</p>
<p>▷원숭이띠 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시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 92년생: 시비수가 따르는 운.</p>	<p>▷닭띠 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81년생: 시함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93년생: 원행은 불리하다.</p>	<p>▷개띠 46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70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소홀했던 사람들의 관계회복에 힘쓰라.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어려워했던 실태가 풀리는 운이다.</p>